

2017년 9월 10일 “찾아오신 예수님(41)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소서”(요 17:20-26)

<도입>

본문 23, 26 절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는 뜻입니다. 많은 신앙인을 견고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진심으로 임하면 삶의 자기 자리에서 한 걸음 변화될 것입니다. 삶의 내적/외적 조건을 극복하게 하는 참 사랑의 힘입니다.

[1] 사랑을 받고 있는가?

어린 자녀는 ‘부모 사랑이 어떤 건지 난 알아요’라고 말하지만, 어른이 되어서 부모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안다’는 표현은 참으로 부족합니다. 참 사랑은 안다는 말 대신 가슴으로 느끼며, 경이를 발견케 합니다.

23 절 후 “...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관계적으로 인격이 교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교의 외형 속에서(이미 우리가 들어온) 기독교 신앙이 요구하는 것은 종교적 성향의 생각과 언어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익히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매주 드리는 예배의 형식 속에서 율법적이 되고, 자기 정당화의 근거가 강해진다(잘한 거야) 그 예배는 해를 쌓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 행위 속에서 위로부터 오는 참 사랑을 도전/경험한다면 어떤 형식이라도 수없이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식을 초월한 수준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광신적이고, 형식적이어야’ 라는 비난을 받아도 결코 형식을 게을리 하지 않겠죠.

신앙 점검에 있어서 으뜸 질문은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교회 밖 사람들도 다 알죠. 각자가 이 질문에 대해 정직해야만 보다 깊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 하나됨과 사랑

23 절 전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여기서 하나되게 함은 사랑 받게 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관계라는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행복과 만족을 채우려는 대상들, 즉, 기본 필요를 넘어 행복의 요인이라 믿었던 돈, 명예, 성취, 지식, 은사, 취미... 이런 것들은 허무(실체 X)로 끝납니다. 내 안으로 끌어들었는데, 결국 사라집니다.

그러나 참 희생적 사랑으로 이룬 진실한 관계는 허무가 아닌 열매를 맺습니다.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은 2000년이 지나도 우리의 관계 속에서 기억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 욕망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자동적 신념), 진실한 관계라는 실체를 누리지 못합니다. 가까운 사이 속에서도 희생이란 손해이고, 불필요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예수님 희생도 불필요한가요?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난 어떻게 되었을까를 고백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말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사랑의 삶을 선택하며 사실 수 있었을까요? 그분에게는 동기부여가 분명했습니다.

히 12:2 “...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미래) 있는 기쁨(영혼의 만족)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희생을 치르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예수님 다음을 드러내는 축복의 자리(title)를 얻으셨느니라)” 그 타이틀은 “주 예수 그리스도”

더 깊이 예수님 말씀을 살피면, **사랑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 받게 하옵소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편함과 안위와 자존심이 위협받는 자리에서 사랑이라는 영적 싸움이 승리하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됨 안에서 사랑받는 경험, 사랑의 감동과 감화가 나를 주장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사랑 못하는 이유는 사랑 받지 못해서입니다. 참 사랑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의 어떤 내면의 이유로 인하여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3] 사랑받는 것과 사랑하는 것

이 모든 이유들은 인간 죄성의 핵심, 자기중심성(극적 표현, 자기도취)에 있습니다. 이것이 깨어지려면 참 희생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은 감동과 경이를 느낄 때에 깨집니다. 그러면 주님에 대한 경외심이 일어나고 그 사랑의 신비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엡 3:18-19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롬 8:37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이 세상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을 이기는 길이 부어주시는 그분의 사랑에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이미 부어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찾고 구할 수 있습니다.

<맺음>

주님의 오늘 기도는 Christianity의 핵심입니다. 나는 그분 사랑을 받아들였고, 그 사랑이 진정 나의 경험인가? 손해의 순간, 불편함을 느끼고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 그 때가 사랑의 승리가 체험되어야 할 좋은 기회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주님께서 부으시는 사랑으로 승리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내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생각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사람들은 사랑을 무어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며 차이가 있습니까?
2. 주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사랑을 체험한 적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주님의 사랑이 나의 무엇을 변화시켰습니까?
3. 기독교의 모든 교리와 형식, 가르침은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어떤 것도 화석화 될 것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경직되고 침체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말해봅시다.